광주, 청년사업 271억·문화전당 활성화 336억
전남, 일자리 418억·문예르네상스 29억 편성

광주시·전남도 내년 예산안 어떻게 짜였나

시, 친환경차 클러스터 224억·전일빌딩 리모델링 80억
도, 공무원교육원 신청사 64억·개천에서 용나게 사업 4억

광주시와 전남도의 내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발굴 사업에 중점 편성됐다.

광주시는 문화전당 활성화 관련 콘텐츠 사업과 청년도시,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등 일자리창출과 미래먹거리 발굴 등 민선 6기 역점 시책에 예산을 중점 배분했다.

전남도는 일자리 창출과 미래산업 육성 기반 구축, 서민 배려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남도문예 르네상스, 개천에서 용나게 하는 사업 등에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한 것이 특징이다.

◇광주시, 민선 6기 역점 시책에 중점=광주시의 주요 예산 배분 내용을 보면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에게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드림사업 등 청년정책 사업에 271억원을 편성했다.

세부 사업으로는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의 근로를 전제로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드림사업 30억원, 청년 예비 창업가 발굴 육성 20억원, 청년특례보증 20억원, 청년창업펀드 10억원, I-PLEX 광주 운영 6억원 등이다.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전일빌딩 리모델링 80억원,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35억원, 첨단실감콘텐츠 70억원, 프린지페스티벌 15억원,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8억원 등 문화전당권 명소화와 문화콘텐츠 구축 사업에 336억원을 반영했다.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해 역점 추진 중인 친환경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에 224억원, 에너지밸리 조성에 91억원을 반영했다. 세부적으로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반 조성 50억원, 자동차 관련 R&D와 부품사업에 65억원, 전기자동차 보급에 28억원, 수소차 보급에 69억원 등이다.

한국전기연구원 광주조직 설립 70억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광주조직 설립 15억원, 에너지밸리 기업개발원 출연 3억원 등도 편성됐다.

김종효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미래먹거리 발굴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년도 역점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개천서 인재 발굴' 사업 등 눈길=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500억원)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418억원 늘어난 1767억원이 반영됐다. 쌀 소득 보전 직불금(1838억원), 도서종합개발(711억원) 등 친환경농업 육성을 포함한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173억원 줄어든 1조577억원이다.

관광·문화사업 육성과 스포츠산업 활성화 분야에 3097억원, 서민생활 안정 등 복지·건강증진 분야 1조7851억원이 편성됐다.

이밖에 교육여건 개선(193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지역개발 분야(6165억원), 주민안전(949억원), 쾌적한 환경 조성(4424억원) 등 사업비가 포함됐다.

주요 신규사업은 공무원교육원 신청사 건립(64억원), F1 경기장 듀얼 서킷 구축(43억원), 튜닝부품 선도기업 지원(40억원), 건강 수산식품 복합센터 구축(30억원), 국제수묵화 교류전 등 남도문예 르네상스 사업(29억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10억원), 일명 '개천에서 용나게 하는 사업'인 취약계층 자녀 인재육성(4억원) 등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초록우산 장성드림오케스트라 연주회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구성된 '한국의 엘시스테마' 초록우산 장성드림오케스트라(지휘자 김현경)의 정기연주회가 10일 오후 장성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렸다. 김 지휘자는 "학생들이 처음 음악과 악기를 접한 후 재미와 적성을 찾아가고 있다"며 "더욱 노력해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로 거듭나고 싶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獨 라이프치히시 창조혁신도시 연대 협약

문화·역사 등 공유

광주시와 독일 라이프치히시가 'ASEM 창조혁신도시 연대'의 첫 발을 내딛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윤장현 광주시장은 9일(현지시간) 독일 라이프치히시를 방문, 브르그하드 융 시장과 연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광주에서 열린 제7차 아셈문화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윤 시장은 당시 "도시 간 가치공유와 긴밀한 소통, 유기적 협력을 기반으로 창조산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를 강조하며 아시아와 유럽 각 국에 '창조혁신도시 연대'(CICA·Creative Innovation Cities Alliance)를 제안했었다.

윤 시장은 라이프치히를 연대의 첫 번째 도시로 선택한 것에 대해 "라이프치히는 통일독일의 발원지로서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와 역사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어느 도시보다 문화창조산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광주와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도시는 앞으로 정기회의를 통해 문화와 역사, 성장 경험, 혁신콘텐츠 등을 공유하고 기업·기관간 교류, 대학 간 공동연구, 심포지엄 개최 등을 추진한다.

또 인권,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과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5·18기념재단과 평화혁명재단, 5·18 기록관과 슈타지박물관 등 역할과 비전을 함께 할 수 있는 기관간의 연대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라이프치히 대표축제인 불빛축제와 광주 미디어아트축제 간에 콘텐츠 및 인적 교류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 디자인비엔날레와 세계 유수의 디자이너들이 참여하는 라이프치히 디자이너스오픈 간의 상호 교류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윤 시장은 이번 방문 기간 독일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미디어아트복합센터인 칼스루헤 ZKM으로부터 창조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연대 제안을 받았다. ZKM은 미디어, 예술, 연구, 교육 등 아카이브적 기능과 실험적 도전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광주와 ZKM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이뤄지면 창조혁신도시 연대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지방 정가

이은방 시의장, 국회서 지역 현안 국비지원 요청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은 10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광주시의 내년도 현안 사업비 확보 지원활동에 나섰다.

이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실과 예결위원회 심사장을 찾아 지역 현안을 설명했다.

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최경환 의원, 김경진 의원, 장병완 의원, 송기석 의원 등을 면담하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403억 원)과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74억원),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50억원) 등 사업비에 대한 예산 반영을 당부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국가 경쟁력과도 연결되는 광주의 지역 현안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오섭 시의원 "市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하위권"

광주시의회 조오섭 의원(민·북구 2)은 10일 시 복지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1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분석한 결과 광주시의 구매실적은 시행령에 기준으로 정한 1%에도 못 미치는 0.54%로, 서울을 포함한 8대 특 광역시 가운데 7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광주시 83개(4급 서기관 기준) 부서의 올 9월 현재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살펴보면 구매실

적이 0%인 부서가 23개를 차지하고 있고, 23곳 출자출연기관의 경우도 자료 실적을 미제출한 7곳을 제외하더라도 실적이 0%인 곳이 4곳이나 된다"면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인권도시를 지향하는 공공기관이 정책에 반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책 수립을 고 주장했다. / 최권일기자 cki@

"국비 축소 '친환경車 클러스터' 제대로 되겠나"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유정심 시의원 우려 제기

광주시의회가 1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의 최대 현안인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의 국비 예산 확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확정한 예산 중 국비 지원 규모마저 50%로 축소시키려는 요구<**광주일보 10월 19일자 1·3면**>에 사업 추진이 제대로 진행될지 우려를 제기했다.

이날 광주시 전략산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정심(국·남구2) 의원은 "지난 7월 기재부의 예타 통과 당시 자동차 100만대 조성사업의 총 사업비는 3030억원, 이 중 국비 2015억원, 시비가 851억원, 민자 164억원 등으로 국비 부담 비율이 대략 67% 규모였다"면서 "하지만 기재부는 지난 12월 말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산업기술혁신 기반조성 기준'을 적용, 장비비(1267억원)와 기술개발(699억원) 부문에 대해서는 애초 70% 국비 지원에서 50%로 낮추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총 예산(3030억원) 대비 국비 부담 비율은 67%(2015억원)에서 32%(983억원)로 반토막나 광주시 부담액이 851억원에서 1883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기재부 예타를 받은 대구, 구미, 울산, 경남의 경우 최고 76%에서 최저 63% 등 평균 68.8%의 국비를 지원하는 반면, 자동차 100만대 사업은 32.44%에 불과하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광주 홀대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이 축소되고 되고 자동차 애프터마켓 부품 시험 인증센터 구축 30억원, 미래형 자동차 부품 및 모듈 패키징 산업기반 조성 19억원, 친환경자동차 연계 VR거점 구축사업 13억원, 자동차 대체부품 홍보관 및 전시관 구축 19억원 등이 모두 탈락했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지원 의지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상배 광주시 전략산업본부장은 이에 대해 "신규사업 예산을 줄이려는 정부 분위기로 사업비가 감소한 것 같다"며 "관련 국비를 늘리기 위해 국회 예결위 등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